문화매일신문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Gyeongsangbukdo Seongju Office of Education

제1533호 2024/2/15/Thu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경기도 김동연, "지방시대 연다는 윤 대통령, 국토균형발전 진정성 있다면 북부특자도에 답해야"

김동연 지사, 14일 북부청사에서 '도정 열린회의' 주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북부청사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북부청사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사안이 정치적으로 흙탕물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개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다시 한 번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발표하는 날 대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며 "그런데 여당 비대위원장은 서울 확장 이야기를 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의 철학과 방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서울 확장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기를 바란다"며 "집권여당도 대통령의 뜻이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시대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서울 편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요청했던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당에서 언급하는 '경기도 분도'에 대해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경기도를 둘로 쪼개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라는 얘기를 쓴 적이 없다"며 "북부대개발과 북부특별자치도의 목적은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 대한민국 전체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 자는 취지다. 쪼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경기도와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용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범상/기자

전남도,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1조 원 발행

2월 한 달 할인율·구매한도 상향 특별행사로 이용 활성화

전라남도는 올해 22개 시군에서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1조 원 어치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9년 처음으로 1천100여억 원을 발행한 뒤 매년 발행규모를 확대해 2023년 1조 원을 발행했다.

전남도는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1조 원을 발행하기 위해 국·도비 325억 원을 지원한다. 할인율은 5~10%를 상시 유지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월 한 달간 할인율을 10~15%로 대폭 상향하고, 1인 구매한도를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광양시는 평소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10%, 1인 구매한도는 50만 원으로 발행하고 있으나 2월 한 달 할인율은 15%, 1인 구매한도는 70만 원으로 상향 판매한다. 이 외에도 15개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를 한 달간 확대해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특별할인 행사는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고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전남도와 한국조폐공사의 협약에 따라 올 1월부터 전남도 광역 지역사랑상품권 앱인 '전남상품권 chak'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시군별 할인율 및 1인당 구매한도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남상품권 chak' 앱에서는 모바일 정보무늬(QR)결제, 주변 가맹점 찾기, 충전금액 환불 등 기존에 사용했던 모든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앱을 이용해 어디서든 자유롭게 충전·결제할 수 있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고금리·고물가·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1조 원을 발행한다"며 "설 명절이 있는 2월 모든 시군에서 특별할인 행사를 추진하니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배/기자

전라남도

경북도, 분산에너지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분산법 시행 앞두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 등 모색
경북형 특화지역 지정과 차별화된 전기요금으로 기업 유치에 전력

경상북도는 지난 14일, 경상북도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경북도와 시.군, 관계기관, 에너지 관련 기업,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과업 추진 방향과 계획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에너지를 말한다.

* 분산에너지 범위(안) : 40MW 이하 모든 발전설비, 수요지 인근에 설치되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설비, 열에너지, 중소형 원자력(SMR) 발전설비 등

지난해 6월 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제정됐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6월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비해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실시한다.

경북연구원(원장 유철균)이 수행하며 용역비 9,500만 원에 용역기간은 지난 해 12월 29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10개월이다.

용역의 주요 과업은 ▲분산에너지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개념 정립 및 전력수급 계획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사업 모델 및 적용 규제 특례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유치 전략 ▲경북형 지역별 전기요금제 모델 구축 등으로 실용성 있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시군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오는 7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고 구체화한 후 최종 결과를 가지고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의 근거 조항을 담고 있어, 그간 경북도가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와 에너지분권 포럼 개최, 전문가그룹 자문 등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앞장서 온 만큼 이번 법 시행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경북은 전력 자립도가 200%를 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지리적 여건 또한 우수해 분산에너지 사업의 최적지"라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신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의회 2025APEC 정상회의 유치특위, 경주유치 위한 광폭행보

2025APEC 정상회의 유치! 천군만마 얻었다. 서울·경기도의회 방문 큰 성과 거둬

경상북도의회 2025APEC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가 2024년 첫 공식행보로 2월 6일 서울시를 비롯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 따뜻한 환대와 함께 적극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배진석 위원장(경주), 박창욱 부위원장(봉화), 윤승오 위원(영천), 윤종호 위원(구미), 이선희 위원(청도), 황명강 위원(비례)과 함께 집행부의 채진원 국제관계대사,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도의회와 집행부의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공동보조를 맞추었다.

첫 방문기관인 경기도의회에서는 김정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진석 위원장이 경주유치의 타당성을 직접 설명했고, 경기도의회 참석의원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들 중 경북이 가장 먼저 방문해 주어 감사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회의유치 기반을 가장 잘 마련한 경주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어 방문한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남창진 부의장과 이병윤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하고 경주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경북도의회와 집행부의 2025APEC 경북 경주유치에 대한 절박함과 철저한 준비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의 미를 가장 잘 간직한 경주가 반드시 회의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특별위원회의 방문 소식을 들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원들과 예정에 없던 면담을 가지고 경주유치의 필요성을 경청하고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경북도의원들의 유치 열망을 지지하며 "내 이름을 빌려 홍보해도 좋다"는 대답을 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날 새해 첫 공식 기관방문을 주재한 배진석 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 유치의 절박함을 대외에 홍보하는 것은 도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과제임에 틀림없다면서, 지금까지 숙박과 교통, 안전대책 등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지만 경북 경주유치 당위성이 누구에게나 공감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더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북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경북도내 생산유발 9천720억원, 부가가치 4천654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세계적인 회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서울, 2025년에는 부산 등 두 번 개최된 바가 있으며, 이번 회의는 금년 4월 이후 개최지를 결정하고 2025년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부산시의회, 부산소재 동물병원 9곳'수의사법'상 진료비 게시의무 위반 부실조사로 3곳 추가적발, 12개 구·군은 현장확인도 안 해

이종환 의원 촉구로 전수조사 실시, 부산시 적발병원 6곳 외, 이종환 의원이 3곳 추가적발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은 지난 1월 부산시로 하여금 부산소재 모든 동물병원을 전수조사(진료비 게시의무)하게끔 견인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부산소재 동물병원 총 276곳(1인병원 201곳, 2인이상병원 75곳) 중 6곳(1인병원 5곳, 2인이상병원 1곳)에서 '수의사법'상 진료비 게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자료를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종환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3개 병원의 위반사항을 추가로 확인한바, 부산시 전수조사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 그간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분들의 가장 큰 애환이, ▲동물병원별 천차만별인 진료비와 ▲진료를 마치고 계산할 때서야 알 수 있는 진료비였다."라며, "다행히도, 개정된'수의사법'이 시행되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진료비 의무게시가 시행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개정법이 시행되고 1년이 넘도록 부산시는 단 한 번도, 동물병원의 진료비 의무게시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면질문 등을 통해 부산소재 동물병원 전수조사를 부산시에 촉구했으며, 그 결과 지난 1월 부산시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를 견인해내었다."라며,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전수조사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총 276곳 중 6곳에서 '수의사법'상 진료비 게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종환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3개 병원의 위반사항을 추가로 적발한바, 부산시 전수조사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부산시는, 이종환 의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확인한 3개 병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는 "본 의원이 추가로 확인한 위반병원의 경우, 세 곳 모두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게시 중이라고 제출한 병원이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해당병원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본 결과, ▲진료비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게시했더라도 수의사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있지 않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진료비 종별 상이'와 같이 불분명하게 게시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시 제출자료에 이번과 같은 오류가 발생한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이종환 의원이 직접 부산시와 16개 구·군 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조사를 위해 동물병원 현장에 직접 나가본 구·군은 4개뿐이었으며, 나머지 12개 구·군은 현장확인도 않은 채 통화 등의 방식으로 동물병원의 답변에만 의존한 채 조사를 진행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수의사법에 명시돼있듯,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만 적법한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 중이라고 답변한 병원에 대해, 각 구·군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대로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 이번과 같은 부실한 조사결과가 나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내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수의사법에 따르면,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부착해야만 법 위반사항이 없는데, 이러한 세부사항에 대한 현장확인 없이 동물병원의 답변에만 의존한 채 조사를 진행한 이번 조사결과는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며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환 의원은, "개정된 수의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첫 전수조사가 실시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개정된 수의사법대로 진료비 게시가 현장에서 잘 실천되어, 1000만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알 권리 및 동물병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그러려면 부산시가, ▲현장확인 없는 형식적인 조사, ▲홈페이지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성의없는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진료비 게시의무에 대한 현장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김희태/기자

영주시의회 전풍림, 김병창 의원 5분 자유발언

전풍림 의원, 영주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국제 슬로시티 지정 제안

영주시의회 전풍림(무소속, 바선거구, 풍기읍·안정면·봉현면)과 김병창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 가흥1·2동)이 2월 14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전풍림 의원은 '영주시의 인구정책 신패러다임 전환과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국제 슬로시티 지정 제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전풍림 의원은 "영주시가 지금까지 추진하던 근시안적인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결단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과 국제 슬로시티 지정을 집행부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풍기읍 금계리 일원을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고, 부석사, 소수서원 등 세계문화유산과 연결하여 국내 최초로 문화유산과 농업유산이 결합된 복합 유산관광 지역으로 발전시켜, 생활인구가 끊임없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육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웰빙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많은 지역들이 슬로시티에 주목하고 있으며, 슬로시티 지정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영주시에서도 공동체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발전 더 나아가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국제 슬로시티 지정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병창 의원은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병창 의원은 "e스포츠는 일부 연령층만 즐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하나의 대중문화로 자리를 잡았으며 신(新)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시는 작년 12월 '영주시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처음으로 개최했고 98개팀, 34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하여 참가자와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과 호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e스포츠 대회 개최 및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도 영주시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규모를 키우고 정기적 개최를 통해 전국적인 대회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내·국제 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선비세상 컨벤션홀, 국민체육센터 등 기존 시설들을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동양대학교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과 e스포츠 교육 및 콘텐츠 기획, 대회 개최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근 e스포츠 관련 업계에서 가장 관심있는 주제는'지역연고제'"라며, "우리시는 e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역량과 인적자원, 시설 등 기반이 부족하지만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원정책과 마케팅으로 프로게임단 연고지를 유치한다면 지역의 우수한 e스포츠 유망주 발굴과 육성으로 풀뿌리 e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고, 관련 산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관람객 및 연고팀의 고정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선일/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발의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끊임 없이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2월 5일, 제322회 임시회에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본 건의안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의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2022년부터 부동산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예방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여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아 사전에 사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 요금을 받고 발부하는 등기부등본이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동산의 점유에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의 등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공신력 없는 부동산 등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지 못하는 이유다.

최재란 의원은 "'민법'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 부동산 등기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시민 대다수는 등기부등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에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데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대법원으로 이송된다.

최광수/기자

청송군의회, 2024년 제1차 의원간담회 개최

청송군의회는 지난 13일 10시 30분,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갖고 군정 주요 사업과 현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사회복지과)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안)(사회복지과) ▲민예촌 운영 재위탁 추진(관광정책과) ▲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농촌활력과) ▲청송군·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MOU(업무협약) 체결(농촌활력과)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권태준 의장은 민예촌 운영에 대해 "고향을 방문했거나 지인이나 친구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군민이 이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신성리 공룡발자국 앞 도로가 위험하니 참고하여 건설과장과 의논해 보길 부탁하며, 안덕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기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니 구입비를 다음 추경에 반영 부탁드린다."며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당부사항을 전했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청사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주민참여형 공공기관 RE100 첫 결실

김동연 지사, 14일 북부청사 태양광발전소 준공 현장 방문하여 설치 현황 점검

경기도가 도 북부청사의 건물 옥상, 주차장 유휴부지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다. 도민협동조합과 협력해 설치한 시설로 지난해 2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선언 후 건립된 첫 태양광발전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RE100 선언 후 경기도 북부청사에 1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돼 뜻깊다. 특히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가 있다"면서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이 쓰는 전기는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RE100을 실천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지키고,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북부청사는 지난해 6월 '경기 RE100' 비전 실현을 위해 현재 84.4kW 수준인 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2024년까지 886.5kW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건립된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시설 확대 계획 발표 후 첫 번째 성과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 옥상, 보건환경연구동 옥상, 관용차량 주차장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경기도 RE100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진행됐다.

공모를 통해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3개 조합을 선정, 함께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이들 협동조합은 의정부, 동두천 지역주민 등 도민 500여 명이 참여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가 유휴부지를 발굴해 협동조합에 임대하고, 협동조합은 도민들이 출자한 자금을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투자해 도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업모델이다. 협동조합은 총 6억 9천만 원을 투자해 최소 20년간 매년 약 1억 1천만 원의 수익을 조합원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북부청사 도민 참여형 발전소 건립 사업에 1석 4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①경기도의 재정 투입 없는 사업모델로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쓰이지 않으며 ②놀고 있는 공유부지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 ③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글로벌 RE100 이행이 시급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④경기도에서 부지 임대 수익을 활용해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재투자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연간 48만 6,180kWh 규모의 전기가 생산되는데 이는 1천여 명이 근무하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의 전력 자립률 16%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 매년 소나무 9만 3,617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22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시작으로 도와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한 70여 개소 모든 청사의 옥상, 주차장 등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내에 도와 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를 전수조사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모든 부지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해 도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을 개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대표적인 확산모델로 제시하고 발전 수익은 참여 도민에게 제공해 민관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도정 연설을 통해 임기 내에 경기도 공공기관 RE100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RE100은 공공·기업·도민·산업 등 4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기업부문에서는 산업단지 지붕과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하는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가 화성시에 조성될 예정이며, 도민부문에서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완규, 고은정, 곽미숙, 심홍순, 명재성, 이택수, 이경혜, 오준환, 변재석, 이인애, 정동혁 의원과 함께 고양특례시 정책과제 추진 논의

의정정책추진단·고양지역 도의원, 고양특례시와 머리 맞대고 49개 정책과제 살펴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13일 고양특례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고양지역 정책과제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사항을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정담회에서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고양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고양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취약지역 범죄예방시설 확충 ▲일산테크노밸리 성공적 완성 및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소음방지시설 확충 ▲청소년 무상 교통사업 추진 ▲주택가 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방문간호, 요양돌봄 강화 및 의료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이 논의됐다.

논의 과정에서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국힘·고양12)은 "경기도형 치매안심마을 건립 및 시·군별 치매안심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고, 고은정 경제노동부위원장(민·고양10)은 "바이오산업은 미래국가경쟁력을 이끌어갈 사업으로 경기도바이오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일산테크노밸리 인프라 조성 및 관련 기관 유치"를 제안했다.

곽미숙 의원(국힘·고양6)은 "밀집한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주차공유제 및 민간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제안했고, 심홍순 의원(국힘·고양11)은 "버스 이용 수요 분석을 통한 대중교통 취약지역 버스노선 확대 및 신규 노선 신설로 일산역 접근성 향상"을 제안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민·고양5)은 "고양 한강하구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관광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한강하구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명소화 추진"을 제안했고, 이택수 의원(국힘·고양8)은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쾌적한 시설 개선 필요에 따른 일산시장 내 공영주차장 신·증축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경혜 의원(민·고양4)은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건립 추진"을 제안했고, 오준환 의원(국힘·고양9)은 "관광서비스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한류월드, K-POP 아레나, 아람누리 등을 활용한 K-콘텐츠 육성"을 제안했다.

변재석 의원(민·고양1)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적돌봄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장애인 돌봄 부담을 낮추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인애 의원(국힘·고양2)은 "어린이집, 유치원 내에서 알레르기로 인한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보육시설 알레르기 전담교사 및 아동발달 전문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정동혁 의원(민·고양3)은 "공원 뿐 아니라 노후화된 건물을 포함한 도내 노후시설 개선비 지원정책을 입법화 해달라"고 제안했다.

정윤경(민·군포1)·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은 "오늘 논의된 49개의 현안들은 고양시 시민의 복리증진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을 확실한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고양시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 김완규, 고은정, 곽미숙, 심홍순, 명재성, 이택수, 이경혜, 오준환, 변재석, 이인애, 정동혁 고양시지역 도의원을 비롯해 고양시 박원석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일자리재정국장, 사회복지국장, 기후환경국장, 교육문화국장, 도시주택정책실장, 자족도시실현국장, 교통국장 등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오는 3월까지 31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찾아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과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장민수 도의원, 경기도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향 모색에 나서

정책 토론회 개최를 통해 청년정책 전달체계 검토 및 센터의 방향성 논의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주최·주관한 경기도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 사항 중 청년지원센터 설치 조항 신설에 따라, 경기도 청년정책과 청년의 삶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을 비롯하여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 김정훈 경기연구원 전략연구센터장, 김하영 청년소통허브 대표, 문지원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센터장, 우인철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단장, 이세라 前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공동대표, 정재원 경기도 광명시 청년동 센터장,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윤정훈 청년정책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다.

좌장을 맡은 장민수 의원은 "경기청년지원센터가 광역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포문을 열었으며 장윤정 도의원은 "가스·전기료 장기간 미납 현황 등을 파악하여 고독사청년 예방을 위한 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훈 경기연구원 전략연구센터장은 시군청년센터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언했고 김하영 청년소통허브 대표는 31개 시군의 청년정책이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광역단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세라 前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공동대표는 온라인플랫폼의 전면개편을 언급했다.

끝으로 문지원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센터장을 비롯하여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청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매니저들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충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장 의원은 다가오는 4월, 제374회 임시회에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상정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여주시, '시민회관 재생사업 주민협의체 창립총회' 개최

시민회관 주민협의체, 성공적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첫 걸음 내 딛어

여주시는 지난 2월 7일(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여주시민회관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여주시민회관 주민협의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주시민회관 재생사업은 정기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아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으로 여주시가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시민회관 신축 설계공모를 통해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

이날 총회는 도시재생 관계자 및 주민협의체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1부행사에서 정관위원회 활동보고와 정관을 승인하고, 시민회관 주민협의체 임원선거를 통해 양종수 대표, 정태원 부대표, 연선희·정의일 감사를 선출했다.

이후 2부 본회의에서 윤설희 사무국장과 김서현 회계담당을 위촉하고, 시민회관 주민협의체 발대식 행사 등의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했다.

이날 양종수 주민협의체 대표는 "다시한번 여주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드리며, 여주시민회관 주민협의체가 여주시민을 대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에 잘 전달하여 시민회관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재생팀장은 "여주시민회관 주민협의체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민회관 주민협의체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이천시, 미사용 지하수 방치공(관정) 원상복구 지원사업 추진

이천시는 수량고갈, 수질 오염, 상수도 공급등의 사유로 지하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방치공)에 대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방치공이란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으로 종료시킨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관정 및 소유자 변경 또는 토지주 허가 없이 설치돼 사용 후 방치된 지하수 관정 등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이며, 원상복구란 지하수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지하수 시설을 해체하고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이천시는 2022년부터 22개소의 방치공을 원상복구 했으며, 2024년에는 방치공 및 미등록 지하수 현장조사와 병행하여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2024년 2월부터 8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 4천5백만원으로 도비 50%을 지원받아 소규모 지하수 약 60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추진방법은 미사용관정을 해당 읍면동 수요조사 기간에 신고하면 수도과 급수팀에서 신고된 자료에 대한 소유자 확인등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 및 관정에 대한 조치방향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선정, 원상복구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대상은 원상복구 의무자 및 지하수 이행보증금 사용 불가능한 지하수 시설에 한해서 지원되며, 지하수 시설의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는 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할수 있도록 원상복구 이행명령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며,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하수관정은 굴착지름과 깊이에 따라 소형관정, 중형관정 그리고 대형관정으로 나누며 간단히 소공, 중공 그리고 대공이라고 부른다.

소공은 굴착지름 50mm미만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낮게 굴착하여 설치한 지하수이며, 중공은 굴착지름 100~150mm으로 수중펌프를 사용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한다. 대공은 굴착지름 150mm이상으로 농업용관정에 사용하고 있다. 이천시에서는 모든 종류의 관정을 대상으로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2024년에는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을 채용하여 방치공, 미등록 관정에 대한 현장확인 및 지하수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천시 관내 미등록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하수 수질오염의 예방과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동안 거주지나 농경지 주변 미사용 관정 및 미등록 관정은 원상복구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과정 중 여러 요인으로 사용 중지되어 방치된 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원상복구할 예정"이라며 "지하수 수질 오염원을 차단하고 지하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수원시 중소기업 국외 홍보영상 아리랑 TV로 전세계 송출한다

수원시, 3월 13일까지 '2024 중소기업 아리랑 TV 송출 영상제작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수원시가 중소업체의 제품 홍보영상을 arirangTV(아리랑 TV 국제방송)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 세계에 송출하는 '2024 중소기업 아리랑TV 방송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중소기업 아리랑TV 송출 영상제작· 방송 지원사업'은 수원시 지원으로 아리랑TV가 관내 12개 창업·중소업체의 TV방송용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홍보영상을 아리랑TV로 전 세계 106개국에 송출하는 것이다.

전문가가 참여 업체의 제품 정보를 분석한 후 홍보영상 대본, 영문 내레이션을 만든다. 아리랑TV 제작팀이 업체를 방문해 제품 개발, 생산 현장 등을 촬영하고, 편집해 영어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은 아리랑 TV로 방영한다. 아리랑TV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

참가업체가 홍보영상을 수출 행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본 파일을 제공한다.

수원시는 3월 13일까지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신청 업체들을 평가한 후 참여 업체를 선정한다. 홍보영상은 4월부터 8월까지 제작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수원시 기업일자리플랫폼 '공지사항'이나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영문홍보물 스캔본, 수출실적증빙 서류 등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TV 홍보영상 제작·송출 지원 사업이 국외 판로 개척이 어려운 창업·중소업체가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수원시 창업·중소업체가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성남시, 동작 인식형 혼합현실 콘텐츠로 치매 예방

중원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새롭게 선보인 'KT 리얼큐브' 인기

성남시가 동작을 인식하는 혼합현실(MR) 서비스를 활용한 치매예방 콘텐츠를 도입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성남시가 작년 12월부터 동작인식형 혼합현실(Mixed Reality, MR) 서비스인 'KT 리얼 큐브'를 중원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KT 리얼 큐브는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 (AR) 장비 없이도 현실 공간에서 가상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로, 동작 인식이 가능한 센서를 연동해 화면에 나타나는 운동 및 인지 과제들을 체험자들의 움직임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인지발달과 체력증진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게임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장비 착용이 불편한 고령층도 메타버스 환경에서 실감 나는 체험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신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 어르신은 물론 아동과 성인들의 인지·정서 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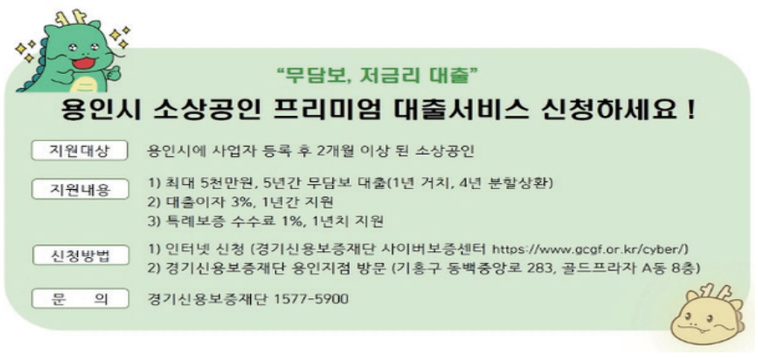
한편, 성남시는 2016년부터 전국 보건소 최초로 '뇌건강 체험 박물관'을 중원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뇌건강 체험 박물관에서는 ▲뇌가 우리 몸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보는 체험 공간 ▲뇌의 진화 과정, 신경계에 관한 정보 제공 ▲뇌 모형 입체 퍼즐 조립 체험 ▲뇌·신경계 3D체험관 (인체 내부 구조를 가상으로 해부) 등 뇌 건강 관리와 치매 예방 등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뇌건강 체험 박물관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5시 30분까지이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지역 소상공인 금융·보증 지원 서비스 신청하세요"

무담보·저금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보증수수료 전액·이자 일부도 지원



용인특례시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저금리 대출 보증을 지원키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간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돕고 시에서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도 시가 1년간 지원해 준다.

대출은 관내 7개 협약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고, 대출 금리는 각 은행 별 시중금리(개인별 상이)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을 신고했거나 지방세 체납 업체, 보증제한 업종(골프장, 주류 도매, 담배 중개 등)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혁신·스마트 업종 운영 소상공인에게도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간 무담보를 빌릴 수 있고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 것은 일반 소상공인과 동일하나 보증수수료는 시가 5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혁신·스마트 기술 도입 또는 온라인을 활용해 영업하는 사업자로 AR·VR, 3D, AI·IOT,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로봇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을 방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이버보증센터로 상담신청 하면 된다. 서류 심사와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특례 보증 규모는 210억원 상당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 위촉

화성시가 지난 13일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서 2024년 화성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토 10명을 위촉하고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멘토링 프로그램은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22년부터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신규 개원 등으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함에 따라 멘토 인원을 지난해 8명에서 올해는 10명으로 확대했다.

멘토는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최소 5년 이상 근무했고 재직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보육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원장들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2024년 멘토로 위촉된 원장들에 대한 위촉장 전달을 비롯해 △멘토의 역할 △멘토 활동 방법 △2024년 프로그램 운영 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지난해에도 멘토로 활동했던 멘토들이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을 하며 겪은 경험과 활동 내용 등을 신규 멘토들과 공유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도 가졌다.

멘토들은 올 한해 신규 개원했거나 멘토링을 요청한 국공립어린이집 35개소에 2인 1조(어린이집 운영 및 회계 멘토링)로 방문해, 화성시 보육 현장에 필요한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알려주는 길잡이로 활동하게 된다.

유난숙 영유아보육과장은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원장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나 어려운 점을 해소해 화성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멘토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프로그램을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시현/기자

광주시, 찾아가는 정신건강 교육 신청 접수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및 조기 발견하기 위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기관 및 단체의 광주시민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3월에서 6월까지 찾아가는 마음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광주시민 15인 이상 구성된 성인 집단이나 단체(사업체)는 누구나 정신건강과 중독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 교육 주제는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중독 교육 주제로는 알코올, 도박, 약물, 인터넷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청기관은 교육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교육 주제에 맞는 검사 요청 시 해당되는 척도지를 통해 현재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가 고위험군으로 나올 시에는 검사자 동의에 따라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의 연계도 가능하다.

교육은 오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을 원하는 광주시민은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QR코드로 접속하거나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센터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조정호 보건소장은 "시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마음 건강강좌 교육을 통해 광주시민이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높힐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상반기 강좌의 참여자 호응도에 따라 더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행안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3년 연속 최고등급'

정책 활용도 및 활성화 문화 조성 등 매우 우수

안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행안부의 첫 실태점검인 2021년 대상부터 2022년, 2023년까지 3년 연속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데이터를 가공·분석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안양시는 주요 평가지표인 ▲관리체계 ▲데이터 공동 활용 ▲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 ▲데이터 활성화 문화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고루 우수한 성적을 받아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평가 그룹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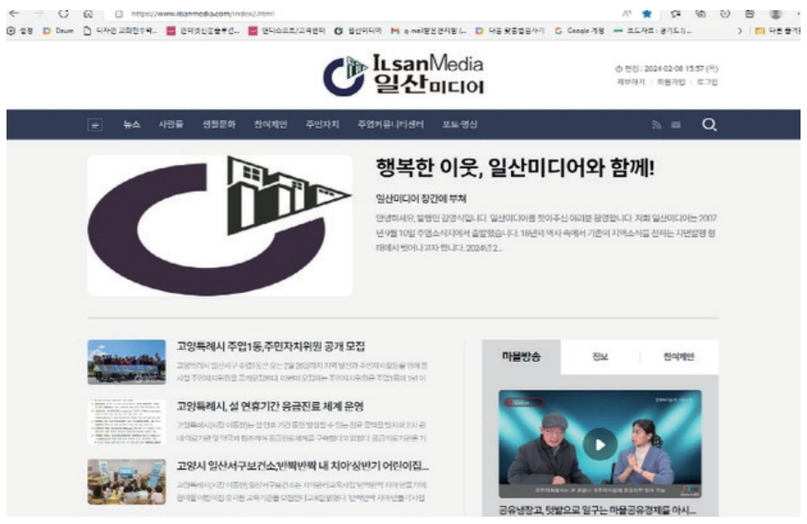
특히, 버스정보시스템(BIS) 최적 설치지점 분석, 주요 상권의 소비 특성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활용 옥외광고(디지털 사이니지), 기습폭우에 따른 하천수위 분석 등을 추진해 실태점검에서 호평받았다.

또, 빅데이터 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공무원 교육 실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서비스 발굴 등으로 데이터 활성화 문화 조성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시는 2022년부터 안양시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로 보는 안양'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청년 관련 다양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화형 정보 제공 서비스 '청년챗GPT'를 개시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 서비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수요를 예측하고 과학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한편, 시민·기업 등에 유용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고양특례시 주엽1동 주민자치회, '일산미디어' 창간

경기도 주민자치회 최초 인터넷 신문 오픈

고양특례시 주엽1동 주민자치회가 인터넷신문 '일산미디어(ilsanmedia.com)'를 창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자치회장이 발행하며 이우정 편집장과 주민자치회 미디어소통분과 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팀이 취재와 편집을 맡는다.

'일산미디어'의 모태는 2007년 9월 10일 창간해 2023년 가을호 44호 발간까지 18년 동안 간행된 주엽소식지이다. 고양시에서 최초로 발간된 주엽소식지는 주엽1동의 변화와 이웃들의 이야기를 충실히 담아내어 그동안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마을 기록물로서도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주민자치회는 인터넷 환경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가 쉽게 전달되는 추세에 발맞춰 주엽소식지를 인터넷신문으로 전환하여 오픈했다. 이는 지난 6일 처음 송출된 마을방송 '주엽사람들'과 함께 지역 정보의 공유 플랫폼으로서 주민들에게 주변 지역의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폭넓게 전달하고 이웃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영식 주민자치회장은 "일산미디어는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매체로서 주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주민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권재 주엽1동장은 "일산미디어가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뢰 받는 미디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안산시, 산하 3개 공공기관 인재 19명 통합채용 나선다

첫 공공기관 통합채용, 오는 28일까지 접수…"공정 채용 문화 정립"

안산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 3곳의 정기 통합채용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관별 인력 채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채용을 진행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방식이다.

이번 공공기관 정기 통합채용 시험 규모는 안산문화재단 등 3개 기관 직원 19명이다. 기관별로는 ▲안산문화재단 5명 ▲안산시청소년재단 6명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8명을 채용한다.

원서접수는 안산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다. 기관별 채용분야가 다양한 만큼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분야를 지원하면 된다.

기관·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채용정보, 안산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사이트 및 각 산하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통해 공정한 방식으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 조직에 혁신과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시 산하 공공기관이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하남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본격 업무실시

하남시가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으로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업무를 시작했다.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의 배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하남시에 파견돼 올해 12월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하남시청 내 별도 사무실에서 토·일·공휴일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법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대상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및 기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등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 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부분이며, 다만 직접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현재 시장은 "법률홈닥터 시행으로 기존 법률서비스의 장시간 예약 대기 등 불편함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취약계층 시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전남도, 2024년산 양파 선제적 수급안정대책 건의

재배면적 증가·기상호조 등으로 3월 조생종 가격 하락 우려

전라남도가 오는 3월 조생종 양파의 본격 출하를 앞두고 정부의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는 지난해 자율 관세할당(TRQ) 양파 수입에 따른 재고량(16만 톤) 증가와 2024년산 양파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산 전국 양파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4.5%(809ha) 증가한 1만 8천789ha다. 기상 호조로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확기 가격은 지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중순 조생종 양파의 경우 약 70~80% 포전거래(밭떼기)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4~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조생종 양파 출하기(3월) 이전에 ▲수입양파(7천 톤) 가공용으로 출하 ▲2024년산 양파 정부 수매비축량 확대(6천 톤→3만 톤) 조기 발표 ▲관세할당 수입량 결정 시 '양파 생산자 단체' 참여 보장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양파 가격은 하락 추세인 반면 인건비, 비료 등 농자재 가격은 크게 올라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해 양파가격이 안정되도록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1월 31일 기준 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 양파 거래 가격은 kg당 1천132원으로 지난해보다 23% 하락했다.

박종배/기자

함평군,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다 확보 총력

전남 함평군이 지난 13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함평군의 인구감소 대응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사업 발굴로 기금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2022년부터 연 1조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 등에 지원하는 재원이며,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해 '기금투자계획'을 매년 수립·제출해야 한다.

함평군은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발굴에 집중, 체류형 관광객 등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를 늘려 정책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 친화적인 생활환경을 만들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전 실과가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진/기자

'또 생각나는 그 맛' 나주시, 나주밥상 프로젝트 순항

지난해 21곳 이어 올해 20곳 추가 선정

음식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나주시가 민선 8기 역점 시책으로 발굴한 '나주밥상 지정업소' 프로젝트가 시행 2년차를 맞아 순항 중이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해 첫 나주밥상 지정업소 21곳에 대한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나주밥상 지정업소는 음식 맛, 위생, 서비스, 가격 등이 우수하고 '건강·안심·배려' 3대 실천 서약을 통한 지역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식당이다.

시는 첫 지정한 음식점 21곳에 나주밥상 지정표지판, 앞치마·수저받침대 등 위생개선물품과 컨설팅 및 경영 마인드, 서비스교육, SNS홍보 등 보조사업을 지원해 업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나주밥상을 경험한 식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지정업소 21곳에 대한 소비자 설문 결과 '신뢰도', '재방문', '다른 사람에게 추천 의사' 등 문항에 응답자의 71.3%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맛과 위생, 친절을 공인하는 지정업소이기에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한다"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나주밥상을 통해 더 친절하고 맛있는 식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주시는 총 100곳 지정을 목표로 올해 나주밥상 지정업소 20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처음 열린 영산강 전국 요리경연대회 결과물과 연계해 나주만의 스토리텔링 음식, 나주밥상 브랜드 물품, 관광상품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오직 나주에서만 향유할 수 있는 식문화 경쟁력을 높이고 나주밥상 브랜드 이미지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찾고 싶은 식당, 또 먹고 싶은 나주의 맛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안/기자

남원시, 지방투자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퀵스타트'사업 추진

미국 조지아주의 퀵스타트 사업, 남원 실정에 맞게 '남원형 퀵스타트사업'으로 거듭난다.

남원시가 지자체 최초로 기업 유치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남원형 퀵스타트(Quick Start)'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은 미국 조지아주의 기업투자 유치 정책인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남원 실정에 맞게 기획한 사업으로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남원에 투자 결정한 기업의 초기 인력난을 해소해줄 예정이다.

사업의 주 내용으로는 관내 신설·증설하는 기업의 필요인력을 사전에 모집·교육을 실시하고, 공장 준공 시점에 맞춰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생에게 2개월 교육 기간 동안 월 최대 60만원의 교육 훈련 장려금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은 교육생 채용 시 최대 2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일하기 좋은 기업, 살기 좋은 남원'을 위한 일터혁신 지원으로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채용에 성공한 기업을 방문, 간식을 지원하고, 지난달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과 안전진단 컨설팅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기업에 취업할 숨은 인재 발굴을 위해 TV자막, 버스광고, SNS활용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구직자들을 위한 전문 컨설팅과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채용직무를 설명하고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의 기회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미국 조지아주는 경제개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도 유치했으며, 우리나라 기아자동차, SK이노베이션 등도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인력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세제, 입지, 현금 등 현행 인센티브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지방투자 유인책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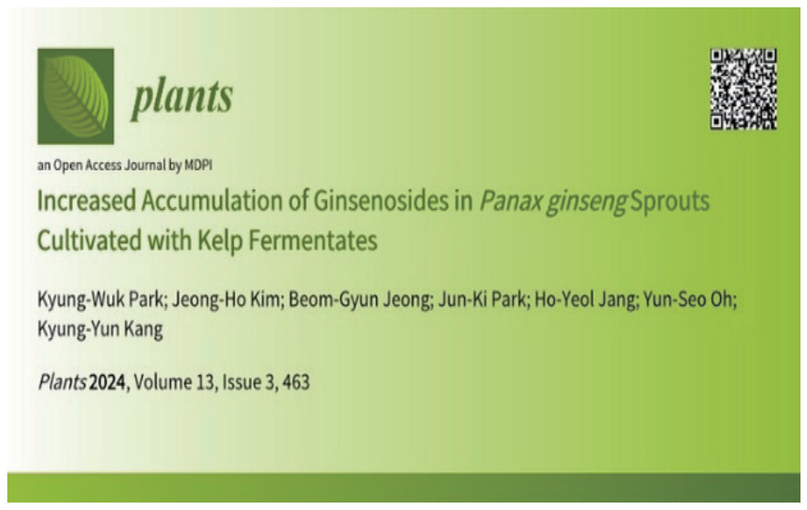
한편 '남원형 퀵스타트(Quick Start) 사업'은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전문기관인 (사)전북산학융합원(원장 나석훈)이 사업을 맡이 수행 중이다.

이남출/기자

남원시

순천바이오헬스케어 생물전환 원료 논문, SCI 국제학술지에 게재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순항, 스마트챔버의 과학적 근거 제공



순천시 출연기관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의 연구 논문이 Plant sciences 분야 Q1에 해당하는 SCI 국제학술지 'plants / Impact Factor 4.5'에 'Increased Aaccumulation of Ginsenosides in Panax ginseng Sprouts Cultivated with Kelp Fermentates'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plants'는 국제전문학술지(SCIE급)로써 식물과학 분야 상위 20% 이내에 들어가는 저명한 학술지이다.

이번 논문은 스마트챔버에서 다시마 배양액을 활용한 새싹삼 생산 적용시 특정 진세노사이드 함유량이 증가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최초 순천시 생물전환 스마트챔버의 과학적 근거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해 9월, 순천바이오센터에서 개발한 미생물 활용 다시마 배양액(스마트켈프GO)이 유기농업자재인증(공시번호 : 공시 3-3-597호)에 공시 된 바 있다.

'스마트켈프GO'는 특화작물인 새싹삼의 특정 사포닌 증폭 효과를 가지는 배양액으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의 생물전환 표준화의 핵심이다.

이는 단계적으로 다시마 배양액의 새싹삼 생산 적용시 생물전환 전구물질(PPD형 진세노사이드) 함유량이 증가하는 연구 결과로 이어졌으며, SCI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실리는 성과를 거뒀다.

시와 순천바이오센터는 다음 단계로 스마트챔버(생물전환 원료 새싹삼 생산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챔버는 농생명자원 재배 중 완벽한 생장 스트레스 및 환경 통제를 통해 기준치 이상의 유용성분 함유를 목표로 하며, 순천바이오센터의 생물전환 고도화 기술의 집약체이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챔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순천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미래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 자신했다.

한편 시에서 추진 중인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ICT 연계 스마트챔버 원료 보급, 생물전환 GMP 소재 생산시설 구축, 지역 바이오산업체 육성 및 지원 등 그린바이오 분야 전주기 원스톱 지원 플랫폼이다.

단순한 농업이 아닌 바이오산업의 초기 단계가 될 스마트챔버, 순천의 그린바이오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준/기자

강진군 쌀귀리 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 워크숍 성황

생산농가·가공업체 60여명 대상…운영 활성화 협의

강진군 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이 지난 7일 강진 K스테이호텔에서 강진 쌀귀리 쌀귀리 생산농가, 가공업체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통합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쌀귀리 농촌융복합산업화 사업단을 중심으로 쌀귀리 재배농가와 가공업체, 강진·도암농협 등 분야별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강진쌀귀리 사업단의 사업 및 올해 사업추진 계획 설명, 농촌융복합산업의 이해와 사업주체 간 협력방안에 대한 강연, 질의응답, 분과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분과별 토론에서는 강진쌀귀리 농촌융복합지구에 대한 SWOT 분석 및 토론을 통해 앞으로 사업단의 추진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이 낸 종합의견에 기회 및 강점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인구 증가를, 위협으로 장거리 운송 시 유통비 증가, 수확기가 늦어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온라인 판매처 및 친환경농업 확대 등으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워크숍은 쌀귀리 1, 2, 3차 분야별 종사자가 참석,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처음 마련된 자리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져 강진군 쌀귀리에 대한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강진 쌀귀리 사업단과 함께 쌀귀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역량강화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다양한 쌀귀리 가공상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추윤호/기자

전북도,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기업애로해소 우수사례 발표

기업의 어려움 함께 고민하고 처리한 전담·처리 공무원 4명 표창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열린 첫 소통의 날 행사에서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기업애로해소 유공자 표창과 함께 선정된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선 8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사례를 공유하며 기업애로해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이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 홍석호 팀장은 '대(對) 러시아 수출제재로 인한 수출중단 위기'에 처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을 방문해 해당 제품이 무기로 전환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함으로써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의 수출액 증가 및 협력업체까지 혜택을 보게 된 사례를 발표했다.

건강증진과 최용대 팀장은 전담기업이 '인증, 특허를 받은 우수제품임에도 판로를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듣고 회사 제품소개서 등을 관공서에 발송하고, 8개 기관(서울시, 경기도, 새만금개발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노력을 통해 지난해 11월 서울시와의 납품계약을 이끌어 내 35억원의 매출을 이룬 성과를 소개했다.

미래산업과 양삼봉 팀장은 '허브농가 폐업으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화장품 원료제조·판매업체를 위해 시와 협의를 통해 인근 농지 2,600평(공유재산)을 제공해 원료수급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숙사 용도변경 애로 등 인허가 처리를 함께해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줬다.

안전정책과 정재관 팀장은 '재난안전연구개발 수행업체가 실증기관 변경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실증기관, 피난기구, 연구방식 등 변경을 추진하여 당초 사업비 보다 1억원 추가 소요 및 사업기간을 줄여주는 도움을 줬다.

김희옥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우수사례를 통해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기업과 행정을 이어주는 소통의 창구로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을 입증했다"며, "특히 올해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의 실효성을 느낀 전 시군의 참여로 더 많은 도내 업체들이 전담되어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도-시군 기업애로해소 업무협약'을 통해 전 시군에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남출/기자

목포시, 2024 최신 경향에 발맞춰 SNS 소통리더 역량강화 나서

각종 SNS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

목포시는 지난 13일 시 회의실에서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홍보와 관련된 SNS 활용 방법을 행정에 활용하는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다변화하는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각종 SNS의 특성을 파악해 적재적소에 효과적인 시정 홍보와 전략 수립을 가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레인아이 대표이자 정보통신(IT) 분야 전문가인 강경철 강사가 교육에 나섰다. 강경철 강사는 주요 관공서의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기획과 운영, 관리를 총괄함으로써 홍보 전문가로 통한다.

이날 교육은 뉴미디어의 최신경향에 대한 설명과, 마케팅 기법을 지자체 홍보 전략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시민들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또한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교육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주무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SNS 홍보의 본질에 대해 알게 됐고, 막막했던 부분들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다"며, "특히, 우리 시 행정업무나 정책 홍보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시정 홍보에 임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뉴미디어가 최신 경향을 이끄는 등 시대가 바뀐 만큼 현대 사회에서 공직사회의 뉴미디어 활용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목포시 공직자들의 SNS 같은 뉴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활용 역량이 보다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신안군, 2024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근무하기 좋은 직장 문화 조성을 통한 청렴도 향상

신안군은 2월 14일 청렴 문화 및 근무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4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2023년도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외부 청렴도 하락 등 최하위 등급을 받아 군민들에게 깊은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종합대책 내용으로는 내부 역량 강화, 고위공직자 청렴도 향상,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 사전 차단, 청렴 인센티브제도 운영 등 4대 청렴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취약한 인허가 분야 및 계약, 보조금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부서별 해당 분야 개선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신뢰를 회복해 청렴 신안으로 거듭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 공직자 모두 청렴 결의를 위해 오는 2월 15일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청렴 감성교육을 실시해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다.

분야별 세부 사항으로는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 공직문화 조성,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청렴 문화 조성, 부패 사각지대 보완 및 열린 감사 정착 등 7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청렴 시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찾아가는 청렴 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공익신고 창구 등을 마련하여, 공사 계약과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1부서 1청렴 시책 보고회를 매 분기 개최하여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현실성 있는 청렴 실천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렴 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고, 직원 상호 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발전해 나가는 청렴 환류 체계 또한 구축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렴한 공직자가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 사회"라며, "신안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비상한 각오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군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구례군, 안전한 설 명절 위한 종합대책 추진

전남 구례군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한 설 연휴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김순호 군수는 5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주요 현안 사업 홍보 강화, 읍면 설 명절 위문품 전달 철저 등 꼼꼼한 군정 추진을 강조했다.

구례군은 이번 연휴 기간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간다. 군청은 8개 반 40명, 8개 읍면은 110명, 총 150명이 투입돼 물가 연료, 재난 재해, 교통, 산불 예방, 생활폐기물, 보건 등 8개 분야를 관리한다.

또한 군은 귀성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민원에도 대응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문 여는 의료기관 등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당번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외에도 군은 떡국 나눔 행사, 아동급식 지원, 어려운 이웃의 안부 확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소외되는 군민 없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구 례 군
GURYE County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Road to Nature, Gurye

광주광역시,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 선정… 국비 27억 확보

광주대·전남대·광주경총과 협약…구직청년 6550명 취·창업 맞춤서비스

광주광역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성장프로젝트' 신규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6억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15세 부터 39세의 광주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단념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업을 돕는 '청년일자리스테이션'과 지역기업에 입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직장 적응지원' 등 총 2개 사업으로 나뉜다.

'청년일자리스테이션'은 청년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거점공간 2개소를 운영, 실업 초기의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청년 고용정책과 연계해 노동시장으로 유도한다.

이곳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경력 재설계, 취업 전 준비(워밍업), 취·창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직장 적응지원'은 입사 초기 청년의 장기 재직을 위해 직장 내 청년친화 조직문화 조성과 직장 적응을 지원한다.

청년친화 조직문화 조성은 지역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최고경영자(CEO), 중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갑질예방 등 교육을 실시한다.

또 직장 적응지원은 지역기업에 입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교육, 기본 오피스교육,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광주대 산학협력단과 전남대 산학협력단, 광주경영자총협회와 협약을 맺고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확보한 국비 26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36억4000만원을 투입, 총 6550명의 청년에게 맞춤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기업을 연결하고, 광주에 많은 청년들이 남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이 꿈을 찾아가는데 청년성장프로젝트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보성군, 마을방송 가정용수신기 설치로 재난예방 총력

'한발 앞선 소통, 두발 빠른 행정' 마을방송 이제 집 안에서 듣는다! 신속하고 정확한 주민 소통망 구축, 효자 역할 '톡톡'

보성군은 호우, 태풍, 한파 등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기 위해 각 가정에 '마을방송 가정용수신기'를 설치한다.

보성군은 2025년까지 전 가구에 가정용수신기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2월 29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주택마다 1대씩 마을방송 가정용수신기를 별도 설치해 내 집에서 편안하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잠시 집을 비워 방송을 듣지 못한 경우에도 다시 듣기 기능으로 재방송을 들을 수 있다.

특히, 음량 조절도 가능해 난청 지역에 거주하거나, 청력이 약한 어르신도 방송 내용을 정확하게 청취할 수 있다.

보성군은 가정용수신기 구축을 통해 태풍, 구제역, 폭우, 폭설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과 선제적 대응 효과가 탁월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해마다 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방송 가정용수신기가 한발 앞선 소통, 두발 빠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장마철 이전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영/기자

진도군, 10억원 투입 동물보호센터 신축

전체면적 330㎡, 지상 1층 규모…2025년 준공 목표

진도군이 진도읍 동외리 일원에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현재 약 30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좁은 공간에 점점 늘어나는 유실·유기동물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신축 동물보호센터는 기존 보호센터를 철거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지향상을 위해 사업비 총 10억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반려·유기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알맞은 보호관리와 질병관리로 동물복지 실현을 기대한다.

군은 견사 뿐만 아니라 묘사를 포함한 보호시설(사육실)과 진료실, 입양실 등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진료업무와 입양 상담까지 할 수 있는 복합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기존 진도개테마파크 부지 내 동물보호센터 신축으로 지역 주민과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시설이 완공되면 군 직영 운영을 통해 동물의 복지와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며 "동물보호센터 신축으로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고금리 위기 소상공인 지원! 농협은행 60억원 특별출연

영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 위한 상생협력 지속 추진

경상북도는 고금리·고물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금융기관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14일 도청 접견실에서 최진수 NH농협은행 경북본부장으로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60억 원 특별출연금 증서를 전달받고, 경북 소상공인을 위해 큰 힘을 보태준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올해에도 농협은행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금리 극복 대책에 동참하는 의미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60억 원을 특별출연하였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임의출연금 22억 원을 추가할 예정으로 총출연 규모는 82억 원에 이른다.

특별출연금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00억 원(출연 재원의 15배수)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고, 자금의 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AI 콜센터(1588-7679)'를 통해 사업장 주소지의 지점을 선택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진수 NH농협은행 경북본부장은 "앞으로도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역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위기가 닥친 어려운 순간에 손 내밀어 잡아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흔쾌히 지원에 나서준 농협은행의 상생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팍팍 지원하니 쑥쑥 자란다!

대구지역 여성 중소기업의 수는 약 13만 개, 최근 3년간 증가세 보여
민관 협력으로 자금조달, 판로개척, 창업교육 등 분야별로 성장 지원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여성 중소기업의 수('21년 기준)는 313만 개, 대구지역의 여성 중소기업의 수는 약 13만 개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세는 여성기업을 지역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코자 대구광역시와 민간이 적극 협력한 분야별(자금조달, 판로개척, 창업교육 등) 지원이 그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먼저 여성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사업'으로 대출이자(1.3% ~2.2%)를 지원 중이며, 지난해 44개 여성기업이 192백만 원 상당의 이자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1월 15일(월)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다.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는 지역의 대표 여성경제인 단체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와 함께 '여성경제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는 전남 순천시와 '동서경제교류회'로 영·호남 여성기업인 네트워크 확장의 초석을 다졌고, 대구지역 여성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여성경제인대회'는 우수 여성기업 제품 홍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영 애로 현장상담 창구도 운영해 고충해소에 기여했다. 더 나아가 올해는 대구지역 여성 CEO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경영혁신 세미나'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한국여성벤처협회 대구경북지회'와 '대구여성벤처기업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해 '23년 여성벤처CEO 베트남 무역상담회에 여성기업 23개사가 참여하여 상담 62건과 계약추진액 1,302천 불 성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에 지속적인 수출 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시는 지역 여성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 '23년 3월 달구벌여성창업보육센터를 개소해 17개 업체가 입주 중이며, IT 분야 여성창업자 대상 교육, 컨설팅 사업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여성기업은 대구중소기업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경제의 비중과 기여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여성들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 성공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박형준 시장,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가 국제적 기준의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하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를 조성하는 데에도 한 축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혀

부산시는 지난 14일 오후 4시 30분,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의 성공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지난해 말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특구의 성공적인 조성과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 해양 모빌리티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다.

중기부는 지난해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공모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부산 등 4곳*을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관련 법령의 금지·제한을 제외한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 등 새로운 규제 혁신·지원 체계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시는 특구 선정에 따라,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인증 지원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 ▲기반 구축·실증·인증·사업화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시장, 오영주 중기부 장관,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 유관기관장, 그리고 해양 모빌리티 기업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기업은 ▲HD한국조선해양 ▲에코프로HN ▲파나시아 ▲제이엠피네트웍스 ▲㈜오리엔탈정공 ▲㈜MS가스 ▲MS이엔지 총 7곳으로,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의 성공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대·중·소기업이 이번 간담회에 모두 참석해 특구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다고 설명했다.

참석기업들은 간담회에서 선박에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국내 실증, 인증 과정에서 규제 등으로 인해 기업이 직면하는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시와 중기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친환경 선박분야의 유니콘 기업 탄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규제로 인해 암모니아 크래킹* 실증이 국내에서 힘든 상황인 만큼, 이번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국내 실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시와 중기부는 이날 제시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반영 가능한 과제는 특구 계획과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과 신속 임시허가 제도 도입 ▲정부-지자체-민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리스크 및 성과관리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국제협력 해외 실증 및 공동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오 장관은 친환경 선박기술 실증센터 등 한국해양대학교의 주요 연구시설들을 둘러볼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세계 각국은 지금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자율운항선박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극 반영해 기업들의 직접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며, 이를 통해 선박의 환경·스마트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산을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에서 세계시장 선도 도시(글로벌 리딩 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가 국제적 기준의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하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를 조성하는 데에도 한 축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청송군보건의료원'걸음아 날 살려라'운영

윤경희 청송군수, "앞으로도 사업의 취지 및 방향을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부를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혀

청송군보건의료원은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중'걸음아 날 살려라'사업을 진행한다.

'걸음아 날 살려라'사업은 보건의료원 직원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어 2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폭발적인 호응과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모바일 플랫폼'네이버 밴드'를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자기 주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들의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 있다.

참가 신청은 네이버 밴드'청송군 걷기챌린지'를 통해 수시로 할 수 있으며, 매월 다양한 걷기 챌린지에 성공한 참가자에게는 사은품을 제공하여 성취감은 물론,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지역주민들이 일상 속 걷기에 재미를 느끼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며"앞으로도 사업의 취지 및 방향을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부를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2024년 교통영양의 원년으로

영양군은 31번 국도 선형개량사업 조기 착공비 10억 원을 확보하며 2024년을 교통 영양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군은 열악한 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군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국도31호선 선형개량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입암~영양 구간의 상습 낙석구간, 도로 침수구간 5.43km 선형개량사업(5년간 총 사업비 920억 원)의 조기 착공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 80여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영양군민 통곡위원회'를 만들어 군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민과 관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는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군은 영양 진입 구간 터널화와 영양읍 관문도로 4차선 개설사업 등 내부 교통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남북 9축 고속도로' 개통을 위해 관계 시군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영양군을 통하는 혈관인 도로 상황이 개선되면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 접근성 증대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의료공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올해를 교통 영양의 원년으로 삼아 사통팔달의 교통로 개선에 중점을 두고 변화와 함께 군민의 생활 편의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개혁으로, 향후 최고로 빛나는 한 해가 되도록 저를 포함한 500여 명의 공직자가 힘내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외국인 도민 만들기 프로젝트, 경북 글로벌 학당 개소

경북만의 차별화된 전국 최초 광역 단위 한국어 교육기관, 경북 오리엔테이션 실시
경북글로벌학당, 문화의 근간인 언어 교육으로 갈등 방지, 외국인 정착 우수 모델로 선도

경상북도는 지난 14일, 경북도립대학교에서 이철우 도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박선하 도의원, 도기욱 도의원, 대학교 총장, 외국인 유학생 등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북 글로벌 학당을 개소하고 현판식을 했다.

경북글로벌학당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언어교육이 필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말을 사용하고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외국인의 국내 적응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광역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경북 글로벌 학당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수요와 경상북도 외국인 정책 기조가 정확하게 맞물려 실행됐다.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들이 이민 초기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경상북도는 발 빠르게 글로벌 개방사회 대전환을 선포하고 외국인이 지역에 스며드는 따뜻한 지방사회를 목표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글로벌 학당은 27개국 총 680명의 유학생과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유학생 교육과정(2주간)과 외국인 근로자 교육과정(1일)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교육은 한국어 토픽, 외국인 정책, 법제도, 생활정보 문화·산업·경제·정주 여건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현장도 방문한다.

이날 학당 개소를 기념하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한국에서 펼치는 꿈'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문화(K-pop, K-food), 경북의 정신(화랑·선비·호국·새마을운동), 경북의 산업 현황(반도체, 로봇 등)과 문화자원, 외국인 정책 등에 관해 유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했다.

경북 글로벌 학당 개소를 위해 경상북도는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도립대학교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학당의 체계와 기틀 마련을 위해 대학의 풍부한 교육 노하우가 필수라는 이유였다.

경상북도는 향후 교육과정 확대 및 다변화, 수료자 비자 발급 인센티브, 일자리 매칭 및 사회적응 지원 등을 추진하여 경북 글로벌 학당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 우수모델로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경북 글로벌 학당을 통해 우리도를 찾는 유학생들이 경북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정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겠다."며,"입국에서부터 정착까지 외국인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따뜻한 상생·포용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찾아가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서비스 실시

5개읍면 소음대책지역 주민대상 전년도분 보상금 지급

예천군은 오늘 15일부터 29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는 우편발송 안내 및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 환경관리과는 교통편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신청자들을 위해 총 42개 마을 51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날짜를 지정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천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후 5월말 확정,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지난해 5,106명이 약 18억7천3백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며 "올해도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한울본부, 문화가 있는 날 '오케스트라&뮤지컬 콘서트' 무료공연

28일 19시 에너지팜 대강당, 차지연·김의지·임규형 출연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오는 28일 오후 7시, 한울에너지팜 대강당에서 지역주민과 문화공감대 형성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케스트라&뮤지컬 갈라 콘서트 'All that HANUL(올 댓 한울)' 을 공연한다.

신년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본 콘서트는 정통 오케스트라에 뮤지컬·성악을 결합한 퓨전 공연이다. 마루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선율 아래 유명 뮤지컬 배우 '차지연'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가수 '임규형' 의 강렬한 음색, 소프라노 '김의지' 의 화려한 성악이 신선한 조화를 이룬다.

이번 공연은 사전 예매를 통해 50명, 선착순으로 25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사전 예매 관련 안내는 추후 한울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과 한울본부 인스타그램(@hi_hanu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공연 내용 및 관람 방법은 한울본부 홍보부(054-785-2941)로 문의하면 된다.

한울본부는 올해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가 있는 날' 을 통해 퍼포먼스 공연, 명사 초청 강연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나는 SOLO, '상주시'와 사랑에 빠지다!

낯선 상주시에서 만나는 설렘과 사랑의 풍경

상주시가 제작지원한 ENA, SBS Plus 인기 예능 프로그램'나는 SOLO'19기가 지난 14일(수)부터 방송돼고 있다.

ENA, SBS Plus 예능 프로그램'나는 SOLO'는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솔로 남녀 12명이 가상의'솔로나라'에 모여 사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지속적인 인기와 화제성 속에 높은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4일(수) 저녁 10시 30분부터 ENA, SBS Plus에서 방송되고 있는'나는 SOLO'19기는 여러 드라마와 시사·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하게 인지도를 높여온 상주시에서 제작지원하여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랑을 찾는 출연자들의 솔직하고 놀라운 이야기와 함께 상주시의 훌륭한 풍경과 우수 농특산물 등 다양한 매력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강영석 시장은"시의 관광명소, 농특산물이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나는 SOLO'를 통해 더욱더 알려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앞으로 몇 주 동안, 출연자들이 만들어가는 사랑의 이야기와 함께 따스하고 정감 있는 상주시 풍경이 아름답게 방영돼 관광객의 방문과 각종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요청이 쇄도하는 상주시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ENA, 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한다.

김동현/기자

영덕군 유림단체, 2024 신년 인사회 개최

김광열 영덕군수, "지역 전통과 유구한 유교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림단체 어르신들께 지역발전 버팀목으로서 굳건히 지켜주시길"바래

영덕군 청년유도회는 회원들의 유대를 증진하고 유림지도자들의 유교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3일 영덕향교 유림회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김광열 영덕군수, 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과 김성철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윤인한 영덕교육장, 권병윤 영해향교 전교 등의 기관단체장들을 포함해 유림단체 임원과 회원 12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문묘향배, 상호세배, 참석 유림대표들의 덕담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세찬과 세주 그리고 참여자들이 함께 오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생기 영덕군청년유도회장은 "올해 갑진년 새해를 더욱 값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유림지도자와 내빈들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의 전통과 유구한 유교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유림단체 어르신들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지역발전의 큰 버팀목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하회별신굿탈놀이 베네치아 카니발 축제에서 흥겨운 마당 펼쳐!

이탈리아 대표축제인 베네치아 카니발 폐막식 무대에 올라
산마르코 광장에서 신명 나는 한마당으로 전 세계 관람객 매료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맞아 더욱 큰 의미

'마르코폴로의 여행'을 주제로 10일간 열린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니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폐막식에서 안동이 자랑하는 세계유산 하회별신굿탈놀이 무대가 펼쳐졌다. 공연단은 지난 13일(화) 산마르코 광장에서 신명 나는 공연으로 전 세계인과 함께 흥겨운 마당을 열었다.

각 나라에 찾아온 관광객들은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고 풍자와 해학의 몸짓에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매년 사순절을 앞두고 10여 일간 펼쳐지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니발 축제는 이탈리아의 가면을 중심으로 화려한 퍼레이드와 경연을 선보이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표축제이다.

2024년은 대한민국과 이탈리아가 수교를 맺은 지 140주년이 되는 해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단의 이번 공연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총 10개 마당 중 4개 마당을 선보인 하회별신굿탈놀이는, 한국 고유의 흥을 한껏 발산하며 모여든 관객들을 금세 매료시켜 열렬한 박수와 찬사를 받았다. 이번 공연은 태평소 소리 와 함께 신내림을 받은 각시광대가 무동을 타는 무동마당을 시작으로, 주지마당, 파계승마당, 양반선비마당을 통해 관광객들과 함께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에 어깨춤을 추고 호흡하며 마무리되었다.

한편 공연무대 옆 부스에서는 안동시 관광홍보 책자를 나눠주고 하회탈 목걸이를 걸어주며 세계유산의 도시 안동의 활발한 현장 홍보도 펼쳤다. 특히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은 공연단과의 포토타임 이벤트는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앞서 지난 9일, 이탈리아를 방문한 권기창 안동시장과 공연단은, 이성호 주이탈리아 대한민국대사와 전예진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장을 만나 이탈리아의 한국 입양아 지원단체인 이타코(ITAKO)를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 초청하는 것을 협의했다.

또한 지난 11일(일)에는 베네치아 시의회 세바스티아노 코스탈롱가(Sebastiano Costalonga) 경제위원장과 마시모 안드레올리(Massimo Andreoli) 카니발 축제위원장을 만나,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에 베네치아 카니발 축제의 가면 공연단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베네치아와 안동은 물의 도시라는 것과 가면축제를 한다는 것, 옛것의 아름다움에서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간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며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이탈리아 최대 축제인 베네치아 카니발 축제에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안동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보건소, 경로당 순회 치매조기검진 '호응

봉화군보건소가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 순회 치매 조기검진'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봉화군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전체 인구수의 39.1%이며, 치매유병률도 13%로 전국 10.16%, 경북 11.2%보다 높다.

이에 보건소는 경로당 순회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달부터 봉화읍 마을회관 및 경로당 38곳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순회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인식개선 교육과 상담 등을 병행해 치매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치매조기검진을 받은 한 어르신은 "치매는 치료가 어렵고 진행이 빨라 조기발견이 중요하다고 들었다."면서 "직접 경로당으로 찾아와서 검진을 해주니 편리하고 좋다."라고 말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치매조기검진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군을 발굴해 치매예방률을 높일 수 있으니 검사와 상담을 통해 치매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군위군, 체류형 관광 활성화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군위군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아카데미 '위스테이(westay)' 교육생을 모집한다.

'위스테이'는 군위군 관내 관광객 이용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기반 조성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구경북신공항도시에 어울리는 관광도시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군위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관내 빈집 등을 활용한 민박업 창업희망자 및 기 운영자로 창업 및 운영 컨설팅, 마케팅 등 실무교육과 우수사업장 견학,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스테이홈 홈페이지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군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3월 6일까지이며, 신청은 온라인(포스터 QR코드 접속 신청)과 오프라인(문화관광과 신청서 제출)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054-380-69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현/기자

경북, 설 명절 화재 발생 전년 대비 약 46.3% 감소해

설 명절 대비 특별경계 근무 등 화재예방대책 효과 나타나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설 연휴 기간(2.8~2.13) 동안 화재, 구조, 구급 등 총 2,673건의 출동을 했다.

화재로 인한 출동은 총 29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 기간(1.20~1.25) 동안 54건 출동한 것에 비해 약 46.3%가 감소했다.

이는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 설 명절을 대비하여 실시한 특별경계 근무, 화재 예방 캠페인 등 각종 화재 예방대책의 추진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화재 발생 원인은 부주의 11건(약 38%), 전기적 요인 5건(약 17.2%), 기계적 요인 4건(약 13.8%), 기타 9건(약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했지만 인명피해는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가했고, 재산 피해는 2억 2430만 원에서 2억 2740만 원으로 310만원이 늘었다.

구조출동은 지난해 472건에서 올해 453건으로 약 4% 감소했고 구급출동은 2,108건에서 2,191건으로 약 3.96% 증가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응급처치, 병·의원 안내 등의 응급의료 상담을 총 2,005건을 실시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와 관련된 도민들의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이번 설 명절 기간 화재 예방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덕분에 지난해보다 화재 발생이 감소하였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각종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하였다.

윤근수/기자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청신호

비상경제장관회의,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월 14일(수) 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타 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정된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예타면제된 용인(반도체)을 제외한 기업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북 울진(원자력수소)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예타면제가 확정 될 경우 국가산단 조성기간이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번 발표로 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선정에서 울진군이 지정되는 데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9개의 앵커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7개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입주수요를 확보하는 등 국가산단 조성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추진해 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울진 국가산단을 예타면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만큼 국가산단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앞으로 무탄소 원전 전력과 청정수소가 풍부한 울진군의 강점을 살려 기업들이 탄소중립시대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여건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부산시-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박형준 시장, "국가 건설안전 정책을 총괄 추진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과의 협력은 안전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건설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혀

부산시는 지난 14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시장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으며, 협약 체결과 함께 지역사회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시 안전관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날 두 기관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건설공사 현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자문 및 컨설팅 ▲건설안전 홍보 및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노력뿐만 아니라 안전한 글로벌 허브도시 건설을 위한 안전관리 신기술 정보교류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국가 건설안전 정책을 총괄 추진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과의 협력은 안전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건설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가덕도신공항, 북항재개발,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등 대형 건설사업의 안전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우리시가 함께 해나갈 일이 많은 만큼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건설공사 설계·시공부터 유지관리까지 건설·시설분야 전반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김희태/기자

설 연휴 경주는 나들이객들로 구름인파… 39만여 명 발길

지난해 설 연휴 보다 55.4% 증가, 황리단길은 전체 방문객의 61.2% 차지
다양한 문화행사 마련,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등 편의제공이 한몫

설 연휴기간 동안 경주 곳곳이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경주 주요 관광지에 1일 평균 9만7천여 명, 총 38만8157명이 다녀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황리단길 23만7786명 ▲대릉원 3만5511명 ▲봉황대 1만2017명 ▲첨성대 2만5915명 ▲불국사 7만6928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설 연휴기간(1.21.~1.24) 동일 관광지 방문객 수 24만9795명을 비교하면 5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황리단길은 이번 연휴기간 동안 전체 방문객의 61.2%를 차지할 만큼 경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가 됐다.

이는 지역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황리단길을 비롯해 인근에 대릉원, 첨성대, 동궁과월지, 교촌마을 등의 대표 문화관광 명소 매력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또 연휴기간 다양한 문화행사도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동궁원에서는 이틀 간 대금산조공연과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등의 민속놀이 체험을 제공했다.

보문관광단지 호반광장에서는 '복(福)작 복(福)작 보문관광단지' 행사를 열어 통기타·트로트·국악 등 흥겨운 공연을 선보였다.

경주엑스포공원에서는 경품 이벤트, 마술 및 댄스 등의 버스킹 공연, 민속놀이 체험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두근구든! 새해 신라용' 이벤트를 준비해 전시실 연계체험, 행운카드 만들기, 인생네컷, 민속놀이 체험 행사를 펼쳐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더불어 연휴기간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한시주차를 허용해 방문객들이 중심상가와 전통시장을 비롯해 도심 곳곳을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제 경주는 관광객 5천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향후 국내 관광1번지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APEC 정상회의 유치는 물론 경주로ON, 사계절 축제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대구 대표 야간 관광명소 서문·칠성 야시장' 2024년 신규 셀러 모집

특색있는 메뉴로 서문·칠성 야시장을 발전시킬 신규 셀러 모집
야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접수

대구광역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오는 4월 초 개장하는 서문·칠성 야시장에서 특색있고 독창적인 메뉴로 시민들과 관광객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을 꿈과 열정이 있는 신규 셀러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야시장 셀러 모집은 서문 야시장 30명(음식매대 24명, 푸드트럭 6명), 칠성 야시장 20명(음식매대) 등 총 50명이며, 중도 포기자 발생 시 투입될 수 있도록 예비자를 분야별로 5명씩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셀러 모집에 관심있는 분들은 2월 19일(월)부터 3월 10일(일)까지 서문 야시장(www.nightseomun.com), 칠성 야시장(www.7starnm.com)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신청 자격 등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홈페이지(dtm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 심사위원을 선임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품평회, 인성면접을 거쳐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하며, 4월 초 개장을 위한 위생·안전교육, 매대 지정 등 입점 준비를 할 예정이다.

올해 서문 야시장은 지난해와 같이 4월 개장 후 12월 말까지 주 3일(금, 토, 일) 운영하며, 칠성 야시장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운영 기간 및 일수를 조정해 오는 4월부터 10월 말까지 주 5일(월, 목, 금, 토, 일)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4월 개장 시 서문 야시장은 기존의 일반매대와 함께 플리마켓 영업뿐만 아니라, 푸드트럭을 점차 늘리면서 젊은층과 외지 관광객에 초점을 맞춰 특화 관광상품 및 메뉴 개발로 핫플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칠성 야시장은 경관디자인 용역을 통해 새롭게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 개발과 야맥 페스티벌 등 참여형 이벤트 및 공연 확대로 야시장별 특성을 살려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문·칠성 야시장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됐고, 여기에 더해 서문시장은 지역의 핵심 관광명소화를 추진하는 문체부의 '한국 대표 전통시장(K-마켓) 10선'에도 선정된 바 있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서문·칠성 야시장이 전국 대표 야시장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며, "야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천도서관, 2월 문화가 있는 날'오늘 집에서 뭐하지?'운영

2024년 도서관과 함께 하는 문화가 있는 날

경상북도교육청 예천도서관은 2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도서대출 두 배로 데이와 어린이를 위한 독후활동 과자집 만들기 키트를 증정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지정해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날이다.

올해 문화가 있는 날은 일상 속 가까이 도서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로 진행될 예정으로 28일 '오늘 집에서 뭐하지?'라는 주제로 첫 행사가 진행된다.

오늘 집에서 뭐하지?'는 <헨젤과 그레텔> 독서 인증샷을 찍은 도서관 어린이 회원 선착순 20명에게 과자집 키트를 증정해 어린이 독서 생활화를 응원한다.

예천도서관 권미숙 관장은 "다양한 주제의 문화행사 개최로 독서와 도서관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일상 속 문화 향유 확산을 위해 도서관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예천군

환경부, 하수도 재정집행 관리 강화… 올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60% 목표 설정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은 조기에 하수도 공사발주 및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치인가(인가기관 시도지사)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는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기초 지자체(읍면동)의 2024년도 재정집행 계획을 토대로 매월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광역 지자체(시도)와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는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올해 상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1월 말부터 한 달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수도 예산 편성 및 재정집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3 예산(A)	2024 예산(B)	증감 (B-A)	%
<특별회계>	2,212,483	2,769,222	556,739	25.2
최종처리 및 안전관리(환특)	6,699	-	Δ6,699	이관
① 유기성폐자원통합바이오가스사설사업	6,699	-	Δ6,699	이관
<하수도예산>	2,205,784	2,769,222	563,438	25.5
물재이용 및 물기술개발(환특)	49,735	52,911	3,176	6.4
①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49,735	52,911	3,176	6.4
하수도 관리(환특)	1,161,919	1,396,270	234,351	20.2
① 하수처리장 설치	771,603	1,024,060	252,457	32.7
하수처리장 확충	358,281	391,041	32,760	9.1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413,322	633,019	219,697	53.2
②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53,823	22,852	Δ30,971	Δ57.5
스마트 하수관로	41,670	10,096	Δ31,574	Δ75.8
하수도 자산관리 체계 구축	8,103	936	Δ7,167	Δ88.4
스마트통합하수관제시스템 구축	4,050	11,820	7,770	191.9
③ 하수관로정비 BTL 임대료 지급	336,493	349,358	12,865	3.8
하수도 관리(농특)	36,152	34,455	Δ1,697	Δ4.7
① 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	36,152	34,455	Δ1,697	Δ4.7
하수도 관리(균특)	957,978	1,285,586	327,608	34.2
① 하수관로정비(균특)	953,051	1,281,593	328,542	34.5
도시침수대응	154,078	327,514	173,436	112.6
하수관로정비	783,948	935,943	151,995	19.4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	9,590	4,405	Δ5,185	Δ54.1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5,435	13,731	8,296	152.6
② 하수도시설 설치(제주)	1,040	300	Δ740	Δ71.2
③ 하수관로정비(세종)	3,887	3,693	Δ194	Δ5.0
<기후대응기금>	-	17,380	17,380	순증
① 유기성폐자원통합바이오가스사설사업	-	17,380	17,380	순증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하며, 환경부는 지자체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5,567억 원(25%↑)이 늘어난 2조 7,692억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도심 내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 예산이 3,275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112.6%↑) 이상 늘어났다.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규모 저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전년도 54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대폭 확대(152.6%↑)됐다.

농어촌지역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예산은 전년도 4,133억 원에서 2,197억 원이 증액된 6,330억 원으로 편성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과 더불어 최근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도시침수 예방 등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성지아/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관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총력" 지시

13일 시청 상황실서 주간 간부회의 열려

박경귀 아산시장이 최근 관내 오리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농장 감염경로뿐만 아니라 타지역 감염 사례를 반영해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박경귀 시장은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관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는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진행한 가금 농가 정기 검사에서 둔포면 소재 한 오리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오리 2만 9천 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농가 주변에 통제초소 2곳을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 시장은 "다행히 해당 농가 주변 반경 500m 이내 가금류 사육 농가가 없어 추가 살처분 대상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직접적인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만큼 타지역 사례를 반영해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례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인체감염으로 사망한 사례도 보고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출입 차량 소독, 축산 농가·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가금류 등 사체 접촉 피하기, 손씻기 등 기본 개인위생 수칙 홍보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 협력체계 강화, 대응 체계 점검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지난 7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충남도의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 관련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를 아우르는 그랜드플랜"이라서 "그 기획의 핵심 무대는 바로 아산"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에 트라이포트 아산항 건설이 포함된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자평하며 "도의 비전 선포에 이은 아산시의 후속 조치, 전략 과제 등을 시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홍보하자"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현재 국토교통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공주-천안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공주-천안 고속도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노선은 아산시 최초 고속도로인 아산-천안 고속도로는 물론, 아산시 주요 도로인 21번 국도, 43번 국도와 연결되지 않아 실익이 없다. 아산시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라고 말했다.

또 "배방 신도시 지역 터널 추진에 따른 안전문제는 물론, 아산시와 충남도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 구축 사업'에도 제약을 줄 것"이라면서 "아산시가 제시한 대안 노선이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 외에도 ▲경찰병원 건립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 철저 ▲의료계 파업 관련 대응 방안 마련 ▲관내 마을 산신제 지원 확대 ▲벚꽃·철쭉 조기 개화로 인한 봄꽃 축제 시기 조정 ▲관내 족욕 시설 주변 편의시설 설치 ▲시그니처 한복 적극 홍보 등을 지시했다.

김원호/기자

서울시, 봄철 야외활동 시즌 전 '들개' 집중 포획… 시민 안전 지킨다

사람과 동물 모두에 안전한 포획틀과 마취포획 병행, 수의사 등 마취포획전문가 투입

서울시는 설연휴 직후인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최근 관악산·북한산 등 도심 주요 산지와 주변 산책로 및 주택지역에 출몰하고 있는 야생화된 유기견, 일명 '들개' 집중포획에 나선다. 4월, 봄 행락철과 산행 등으로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기 전 최대한 포획을 진행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악산(청룡산·삼성산 포함), 북한산(도봉산·수락산 포함) 등지에서 서식하는 들개는 약 200마리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들개들은 무리 지어 이동하며, 다른 종의 동물을 해치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주택가 등에 나타나 시민의 위협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와 자치구는 상시 포획활동을 펼쳐 왔으나 야생화된 유기견인 들개는 서식 및 활동범위가 넓고 성견의 경우 포획틀에 대한 학습 효과로 포획 성공률이 낮아 개체수 조절 및 서식지 확산을 막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외에도 일부 시민들이 포획틀에 갇힌 들개를 풀어주거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사례 등도 포획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번 포획활동은 들개포획용 표시와 연락처가 기재된 포획틀 120여 개와 마취포획을 병행한다. 특히 성견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취포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수의사와 마취포획전문가로 구성된 포획팀과 2인 1조 수색팀을 운영한다.

시는 시민안전과 포획효과 제고를 위해 포획틀에 접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포획된 들개를 발견한다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해 신속하게 보호조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포획된 개를 풀어주면 재포획이 어려우며 먹이 등을 제공하면 포획 어려움은 물론 개체수 증가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으니 자제해 줄 것도 덧붙였다.

포획된 개는 유기동물로 준해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고 유기동물 공고가 종료된 개는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력해 사회화 훈련 후 입양자를 찾게 된다.

아울러 보통 들개는 야생성으로 사람을 경계하기 때문에 먼저 접근하는 경우는 적지만 위협을 느끼면 공격할 수 있으니 먹이를 주거나 구조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갑자기 뛰거나 소리를 질러 들개가 위협처럼 느끼지 않도록 차분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들개는 사람을 공격하기 전 경고를 하는데, 몸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이빨을 드러내거나 으르렁거리면 들개와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하며 산행 시 만난 어린 강아지는 어미 개가 곁에 있을 수 있으니 함부로 다가가거나 만지지 않아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집중포획 기간 운영은 시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원활한 포획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포획효과가 높은 계절에는 집중포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통영시드림스타트 아동 생일 케이크 지원 사업「너의 생일을 축하해!」큰 호응

통영시는 드림스타트 아동 280명을 대상으로 생일 케이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해 대상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로 14년째를 맞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너의 생일을 축하해!'사업은 생일을 맞이하는 드림스타트 아동(2024년 기준 280명)에게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생일 전날 또는 당일 가정을 방문, 생일 축하와 함께 케이크를 전달하고, 그 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양육태도 등 1:1 부모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열악한 가정형편에 생일을 기념하기 어려운 드림스타트 아동 가구에 아동의 자존감을 높이고 가족 간 돈독한 유대감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케이크는 매년 관내 베이커리 업체와의 협약 체결로 운영하며 올해 협약업체는'양우연케익하우스'로 생일케이크 비용의 10%를 업체 측에서 부담한다.

2월에 생일을 맞은 김○○ 아동의 어머니는"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의 생일에 케이크 사주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케이크 선물을 해줘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 통영시드림스타트에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1년의 한 번뿐인 생일에 통영시드림스타트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이 사업을 통해 가족과 함께 탄생의 기쁨과 소중함을 나누는 특별한 추억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강원도 반값 농자재 지원 2년차, 사업 확산 통해 중소농 경영안정망 구축

('23) 시행·정착 → ('24) 홍보·확산 → ('25) 지속확대·안정화 → ('26) 반값 실현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전국적 관심과 농업인으로부터 크게 환영 받았던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을 올 해에는 사업 내실화와 홍보·확산에 주력해 농가 경영안정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 해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은 573억원(도비 86억원)으로, 신청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직장가입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외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주지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실적은 도 지원사업 286억원 외에 시군에서 추가 자체 증액(300억원)하여 총 586억원 규모로 지원됐으며, 올 해도 시군의 관심과 자체증액 추가 지원이 기대되는 만큼 전체 지원규모는 지난해 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은 중·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영농자재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가 경영안정 뿐만 아니라 관련 전·후방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석성균 농정국장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태백시, 2024년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접수

태백시는 오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2024년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은 폐광지역 주민의 경제 자립 및 소득 증대를 위해 폐광지역 진흥지구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인증 획득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세부 과제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규 신청 기업은 2개 과제, 기존 수혜 기업은 1개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신청서류를 갖추어 태백시청 경제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폐광지역 내 기업들의 매출 확대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민선 8기 공약, 임기 내 완료해야" 빠른 추진 당부

아산시, 13일 민선 8기 공약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박경귀 아산시장 주재 민선 8기 공약 추진 상황 보고회가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 8기 공약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임기 내 사업 완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경귀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은 총 101건이다. 완료 25건, 정상 추진 72건, 일부 추진 4건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24.8%가 이행됐다.

추진율은 56.4%이다.

보고회를 마친 박 시장은 "체계적인 공약 수행을 위해 공약사업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고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임기 내 완료를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는 공약 이행률 향상과 투명성 있는 공약 관리를 위해 분기별 공약 추진 현황을 점검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 모색

14일 도·시군 자살 예방 담당자 간담회…사업 공유·소통 강화

충남도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군 자살 예방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업하는 주요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각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019년 35.2명, 2020년 34.7명, 2021년 32.2명, 2022년 33.2명으로 최근 꾸준히 감소하다 2022년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2022년 도내 자살률(33.2명)은 전국 평균 25.2명 대비 8명 높은 수준이다.

이에 도는 올해 자살 예방 멘토링,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생명사랑 공동캠페인 및 자살 예방 홍보 지원 정책, 충남형 정신건강관리망 운영 등 자살 예방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 생명사랑 행복마을, 생명존중약국 및 사업장 중심 중장년 자살 예방 심리 지원, 자살 고위험군 자조모임 등도 진행한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시군 담당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검토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자살 예방 사업 추진 시 반영할 방침이다.

이헌희 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지역 맞춤형 정책 등 도의 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충북도, 홍역 유행국가 방문시 미접종자, 1세 미만 영유아 홍역 예방접종 권고

빠른 면역 형성을 위해 홍역 가속 예방접종

충청북도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영국, 미국 등 홍역퇴치 인증을 받은 국가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는 홍역 예방접종(MMR)을 통해 홍역에 대한 면역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생후 6개월~11개월의 영유아는 유행 국가 방문 최소 2주 전에 1회 접종하고,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받지 않은 6세 이하의 소아는 1차 접종과 최소 4주(28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면역의 증거가 없는 청소년 및 성인의 경우, 출국 4~6주전 홍역(MMR) 백신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 완료하는 것이 좋다.

충북도 관계자는 "홍역은 예방접종을 2회 완료한 경우, 97% 이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 표준 접종일정(생후 12~15개월 1차, 4~6세 2차접종)에 따라 홍역(MMR)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홍역 유행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반드시, 여행 전 홍역(MMR) 백신을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고정화/기자

unesco 세계지질공원 cittaslow 산소카페 청송군

꼭지 하나 달렸을 뿐인데…
청송사과 더욱 신선합니다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는 올해부터 꼭지를 치지 않습니다.
꼭지 달린 사과는 더욱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꼭지를 치지 않으면 일손이 크게 절감돼
전국적으로 연간 660억원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날까지 청송사과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대한민국 사과의 표준, '명품' 청송사과.

서울특별시, 오세훈표 `우먼업 3종세트`로 18만 경력보유여성의 사회진출 이끈다

작년 2,714명 지원…그중 34.6%인 942명 취·창업 성공, 참여자 만족도 98.4%

서울시는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추진, 올해 총 2,610명의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책「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이기도 하다.

서울시 경력보유여성은 18만 명('23년 기준)으로 이중 약 84%(15만 명)가 3040 여성(만30세~49세)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여성들이 젊을 때 꾸준히 일하다가 50대에 은퇴하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20대에 취업한 후 30대에 임신·출산 등으로 그만두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시 일을 시작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 등으로 일하는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거나,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로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합계출산율 '0.59명'('22년, 서울 기준)이라는 암울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출산과 육아로 일터를 떠났던 여성들이 경력을 살리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①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우먼업 구직지원금'(30만 원×3개월) ②3개월간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우먼업 인턴십'(생활임금×3개월) ③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300만 원×1회) '3종 세트'로 구성된다.

작년에는 '서울우먼업프로젝트'에 참여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력보유여성 942명(구직지원금 904명, 인턴십 59명 *중복 21명)이 취·창업에 성공하여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우먼업 프로젝트 참여자 총 2,714명에게 지원했고, 세부 사업별로는 구직지원금에 2,614명을 지원, 그중 904명(34.6%)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우먼업 인턴십에는 100명을 지원했고, 59명이 취창업(59%)에 성공, 그중 46명은 인턴십 연계 기업에 취업하여 해당 기업에 고용장려금도 지원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만족도는 구직지원금 98.4%, 인턴십 94.9%로 우먼업 프로젝트가 경제활동 복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참여기업의 경우에도 인턴십 참여 후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비율이 96%에 달해 참여자와 기업 모두 만족했음을 확인했다.

올해에는 우먼업 프로젝트 2년차를 맞아 사업내용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양육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여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3040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26개 여성인력개발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자격증 전문강좌를 비롯한 맞춤형 구직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지원금을 통한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민관협력의 '프로젝트형' 사업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인턴십을 연계하고, 육아제도 확대추세에 발맞춰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경력채움형' 인턴십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2,500명에 '구직지원금' 주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양육자에 가점 부여]

우선, 서울시는 올해 '서울우먼업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오는 19일(월)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을 개시한다.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작년 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사업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3040여성들의 수요에 맞게 특화하여 올해 2,500명을 지원한다.

작년 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3040 경력보유여성들은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부터 취업 지원서비스를 받고 904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22년 기준 만 25세~54세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42.6%이고, 경력단절 평균 발생연령은 29세이다. 경력단절여성의 평균 재취업 소요기간이 8.9년이 걸리는 데 비해('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 참여자는 미취업기간 5년 미만 참여자가 65.3%로 본 사업을 통해 조기 경제활동 촉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만족도 조사결과 구직지원금에 대해서는 98%가 경제활동 복귀에 도움이 됐고,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는 93.5%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는 양육자를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육아와 경력복귀 준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자녀수를 가점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맞춤형 구직활동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 구직지원금 신청 후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총 26개)에 구직 등록을 하면 우먼업 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경력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경력단절 기간, 경력 조건, 전직 희망 여부 등 특성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성인력개발기관의 다양한 직업훈련교육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 26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는 정보통신(IT/SW),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 보육, 문화·예술·디자인, 서비스 분야 등 올해 약 1,40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뿐 아니라 전문 상담사의 진로·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고, 수료 후에도 구인-구직매칭, 직장적응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올해 총 3회에 걸쳐 모집하며, 1차 모집(1,300명)은 2월19일(월)~3월8일(금) '서울우먼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2차 모집 4.15.~4.30., 3차 모집 5.16.~31. 예정)

지원 조건은 서울시 거주하는 만 30~49세(1974.1.1.~1994.12.31.) 미취창업 여성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1차 모집은 총 1,690명을 선착순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1,300명을 선정한다. 선정여부는 3월 28일 안내받을 수 있고, 구직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을 통해 구직등록 및 경력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을 필수 완료한 이후 구직지원금이 지급된다.

구직지원금은 3개월에 걸쳐 매월 구직활동 이행 및 확인 후, 30만 원씩 지급(최대 90만 원, 우먼업 포인트로 지급)되며, 구직지원금을 받는 중 취창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취창업성공금 30만 원도 지급한다.(구직지원금 포함 최대 90만 원 이내)

[취업역량 갖춘 경력보유여성 110명에 3개월 간 기업 '인턴십' 제공해 취업 연계 지원]

우먼업 인턴십은 직업훈련교육 수료,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준비를 마친 경력보유여성에게 3개월 간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1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3월 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4월부터 사업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인턴십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인턴십 참여자의 인건비(3개월, 프로젝트형은 2개월)는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 채용 계획이 있거나 육아휴직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서울우먼업' 누리집을 통해 인턴십 사업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우먼업 인턴십에는 100명이 참여해 이중 88명이 수료했고 5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인턴십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경우 만족도가 94.9%, 기업의 경우 인턴십 참여 후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비율이 96%에 달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은 보유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단절 기간이 패널티로 작용해 서류심사 통과도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 우먼업 인턴십을 통해 직무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취창업률 향상과 인턴십 후 고용 연계를 위해 인턴십 유형을 다양화한다.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경력보유여성을 매칭하는 '채용연계형' ▲민관협력 사업으로 기업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은 후 인턴십으로 연계하는 '프로젝트형' ▲육아휴직 제도 확대 추세에 발맞춰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경력채움형'으로 추진한다.

[인턴십 참여자 정규직 전환 또는 1년 이상 계약 기업에 300만 원 '고용장려금']

'우먼업 인턴십'과 연계해 추진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은 인턴십 종료 후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1년 이상 계약한 기업에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양육친화기업 및 장기고용 의사가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서울우먼업' 누리집이나 카카오톡('서울우먼업 프로젝트'),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경력단절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각오로 시작한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출산과 육아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났던 경력보유여성들이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여성들이 언제든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모범적인 사례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취·창업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는 만큼, 3040 경력보유여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윤석열 대통령,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약속

대통령,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4일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격려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오찬에 앞서 지난해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역대 최대 규모(약 327억불)의 외국인 투자에 나서 준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뜻을 밝히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오늘 오찬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에 더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참석자들의 건의와 관련 토론도 이어졌다. 오찬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금융, 노동,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오늘 오찬의 의미를 더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 후프 회장, 한독상공회의소 마틴 행켈만 회장, 한불상공회의소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회장, 서울재팬클럽 이구치 카즈히로 회장 등 주한 상공회의소 대표들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박광선 대표, 한국GM 핵터 비자레알 대표, 에쓰오일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대표 등 외국인투자기업 12개사 대표가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경북교육청, 2024 직업교육 정책설명회 개최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는 경북 직업교육’ 정책 안내 및 현장 의견 수렴
임종식 교육감, “직업계고 고졸 취업만으로도 성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질 높은 직업교육 정책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지난 14일, 구미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도내 전 직업계고 교장과 부장 교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추진에 반영하고, 직업교육의 정체성과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경북교육청 직업교육은 ‘더 나은 내일(My work, My future)을 보장하는 경북 직업교육’을 비전으로 32개 추진 과제로 수립됐다.

특히, 올해 중점과제인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경북형 마이스터고 지정 △10차산업 미래 직업교육과정 운영 △(가칭) 경상북도교육청 미래직업교육관 설립 △경북형 평생 직업교육 모델 개발 △경상북도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경북 직업교육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학년도 경북 직업계고는 마이스터고 7교, 특성화고 48교로 총 55교이며, 이 중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되어 2025년 3월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또, 올해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 결과 타 시도 학생 1,326명이 경북 직업계고에 지원했고, 특히 해외 우수유학생 48명이 입학하여 경북 직업교육의 우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직업교육은 대한민국의 표준을 넘어 세계 직업교육의 표준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직업계고 고졸 취업만으로도 성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질 높은 직업교육 정책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교육지원청,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봉화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화)부터 14(수)까지 1박 2일 동안 충무아트센터 및 서울 일원에서 봉화 지역 유·초·중·고 희망 교원 39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교육부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공모사업으로, 봉화교육지원청이 2023년도부터 문화적으로 소외 지역인 봉화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사업이 지속 운영된다.

이번 교원 연수는 우리동네 예술학교 담당 교원의 문화예술교육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이대영 교수의 문화예술특강, 문화예술공연 관람 및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동력을 함양했다.

권혜자 교육장은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교원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 2024년도 각 학교별 사업 운영에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찾아가는 난독 학습 치료 지원 성과보고회 개최

치료지원 전후 비교 결과 95% 이상의 학생이 한글 해독 능력 향상
임종식 교육감, “찾아가는 난독 학습 치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한 학생도 놓치지 않고 교실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지난 14일, 도 교육청 2층 홍익관에서 난독 치료지원 위탁기관 관계자와 교육청 업무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난독 학습 치료지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난독 학습 치료지원’ 사업은 난독과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학생을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치료지원을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읽기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전문기관에서는 언어치료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학습 자신감과 또래 관계를 회복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검사와 치료를 지원한다.

치료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한국어 읽기 검사(KOLRA) 등에서 95% 이상이 한글 해독 능력의 향상된 결과를 얻었으며, 유창성의 개선으로 읽기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됐다.

경북교육청은 2024년에도 100여 명의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신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난독 학습 학생의 성장을 촘촘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찾아가는 난독 학습 치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한 학생도 놓치지 않고 교실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교육지원청, 나이스 기반 관사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달 교육 실시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화), 청송초등학교 컴퓨터실에서 ‘나이스 기반 관사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처음 도입된‘나이스 기반 관사관리시스템’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관사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관내 학교 관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나이스 기반 관사관리시스템’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관사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나이스 인사정보와 연계하여 관사 입주 신청·배정 업무를 전산화하고, 관사 운영자료를 현행화함으로써 관사 관리 업무 경감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경 교육장은 “나이스 기반 관사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사 관리를 통해 교직원의 주거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수업 혁신 문화 조성 나서

부산시교육청이 2024 새 학년 함께 준비하는 달 ‘집중운영기간’을 활용해 수업 혁신 문화 조성에 나선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5일 오후 2시 30분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중·고등학교 71교를 대상으로 ‘2024 질문 기반 수업 혁신 연수’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올해 처음 운영하는 이번 연수는 새 학기 시작 전 모든 교사가 함께 수업 혁신 문화를 조성하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연수에는 박원주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가 질문 기반 수업의 개념과 구체적 실현 방안 등 내용을 담은 ‘2024년 변화하는 수업의 방향’에 대해 안내한다.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 토론이 일상화된 학교 수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어 정혜승 경인교대 교수의 ‘질문이 살아 있는 수업 디자인하기’ 주제 특강이 이어진다.

부산교육청은 연수 후 질문 기반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료도 보급한다.

오는 3월 중·고등학교 교과별 ‘질문이 살아 있는 수업·평가 바로 적용하기’ 교수-학습 도움 자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질문 기반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참관록’, ‘홍보 포스터’ 등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성환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수업 중심 학교 문화 조성과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수업 혁신 연수 등을 통해 수업 질 제고와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포항교육지원청 공무직 조리사 대상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행동 매뉴얼 교육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수)부터 오는 16일(금)까지 진행되는 조리사 조리과정 직무연수에 참석하는 공무직 조리사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및 행동 매뉴얼 교육을 포항대학교 성실관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산업재해를 입은 조리종사원의 재해사실에 대한 미보고 및 지연보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방지하고 재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재해의 근원적인 예방관리 추진 및 재발방지를 위해 실시되었다.

김정숙 행정지원과장은 “오늘 전달해 드리는 교육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교육청도 학교 현장을 도와 안전한 교육환경이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고양특례시의회
Goyang Special City Council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

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품질 향상 및 안전교육 실시

현장중심 실무교육으로 방제성과 Up, 안전사고 Zero

경상북도는 지난 14일, 산림청, 경북도, 시군 소나무재선충병 담당 공무원, 방제사업장 현장대리인과 감리인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사방기술교육센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향상과 사업장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림청 산림재난긴급대응반이 재선충병 방제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방제 현장 사례 중심의 품질 제고 방안을 실제 사업장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50인 미만 중소사업장 확대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장에 대한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 집중관리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함께했다.

도규명 경상북도 산림자원과장은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선충병 방제의 성패는 사업장의 방제품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장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리에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기회발전특구 추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영주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 박차

영주시는 지난 13일 오후 3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영주시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및 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의 핵심 균형발전정책 중 하나로,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및 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날 보고회는 송호준 영주부시장,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베어링아트, SK스페셜티(주), 영주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의 기본계획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2024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이번 용역에서 △특구 지정을 위한 영주시 현황 및 산업 분석 △영주형 기회발전특구 전략 수립 △특구 내 기업 수요예측 및 영향 요인 조사 △영주시 특화형 지원 및 규제개선 사항 발굴 등을 수행한다.

송호준 영주부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영주형 기회발전특구 전략을 신속히 마련해 특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봉화군의회, 제262회 임시회 개회

올해 첫 의정활동 시작…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열려
김상희 의장,"이번 회기는 군정 기틀 결정 회기인 만큼, 군정이 적극·역동적으로 추진되도록 역량 집중, 군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밝혀

봉화군의회는 14일 제262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 제·개정안 안건 처리 등 오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봉화군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날인 2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5일부터 22일까지는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주요 현안사항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은 상정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6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상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2024년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리고 군정의 기틀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정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군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봉화군의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박진규㈜더스카이 실장, 영양군 고향사랑기부금 5백만원 기탁!

박진규 ㈜더 스카이 실장이 2월 14일 영양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백만 원을 기탁했다.

올해 첫 고액기부자인 박진규 실장은 "영양군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라며 "살기 좋은 영양을 만드는데 기부금이 소중히 사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주신 박진규 실장님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기부금은 영양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고향사랑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영양군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2년 차를 맞이하여 답례품목을 총 11종으로 늘려 기부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고 작년에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으로'취약계층 세탁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생활밀착형 공공복지 서비스를 실현하여 기부자와 군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사회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영양군 지역발전에 사용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2024 NA(Not Alone)의 시작' 을 함께 해줘! 동래구,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

부산 동래구는 2024년 고용노동부가 공모한'청년도전 지원사업'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18세~ 34세 구직단념 청년 등 9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 의욕을 향상시켜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동래구는 올해 4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도전(5주) ▲도전+중기(15주) ▲도전+장기(25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한다.

도전과정을 수료하면 참여 수당과 취업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최대 50만원, 도전+중기는 최대 220만원, 도전+장기는 최대 3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래구가 든든한 발판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의성군,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 추진

김주수 의성군수, "이번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과 공공요금 절감 등 지역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한층 높여 스마트 시티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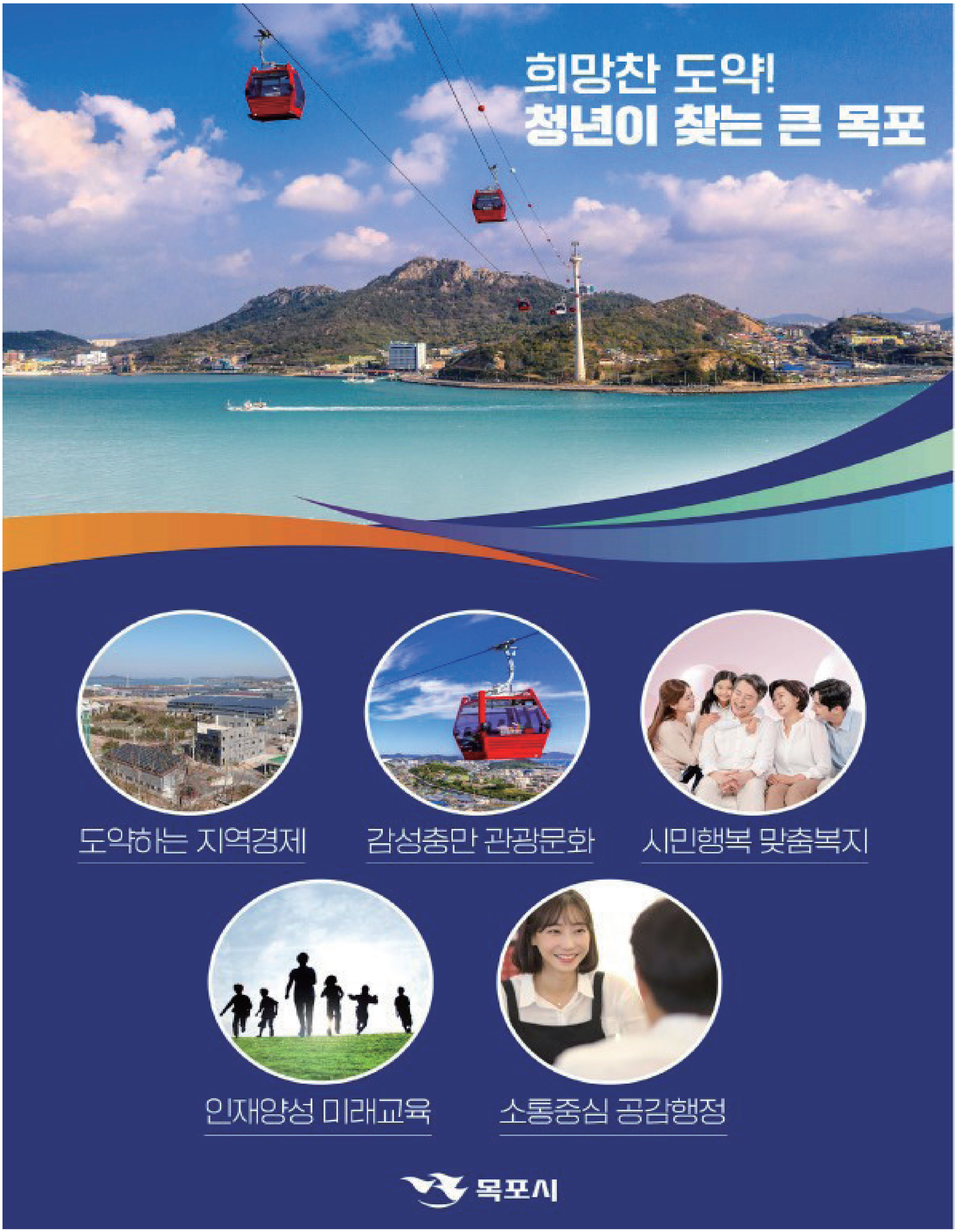
의성군은 가로등 관리의 현대화 및 스마트 시티 전환을 위해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가로등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CCTV, 날씨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누전, 정전, 램프 불량 등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다.

군은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통행 위험구간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모니터링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민원 예방, 점소등 제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요금 절감에 힘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등 지역의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한층 높여 스마트 시티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도약하는 지역경제
감성충만 관광문화
시민행복 맞춤복지
인재양성 미래교육
소통중심 공감행정
목포시